

광주 비엔날레 국제타운 조성 ‘중대고비’

KDI 이번주 예비타당성 평가 의견 정리

결과 속도 못해... 사업 축소 등 차질 우려도

광주 비엔날레 국제타운 조성사업이 중대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 추진의 선결조건인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예산 조달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번 주중 회의를 연 뒤 비엔날레 국제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평가 의견을 정리할 방침이다. 예타는 일정 규모 사업에 착수하기 전 정부가 그 타당성을 지속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일정 지수값을 받지

못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 시 측은 최근 동향 파악을 위해 KDI 관계자를 만난 결과 다가올 회의에서 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를 토대로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결과 기준에 미달해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KDI는 B/C 분석을 위해 광주비엔날레와 관련한 설문조사도 했지만 인지도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KDI 측이 신중한 자세를

보여 통과 여부를 속단할 수는 없다”며 “실사 통과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시에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면 편익분석에 반영해 다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시에서는 예타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을 경우 광주시에 유리한 자료 등을 제시해 예타결과에 반영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예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국비 등 사업비 축소나 계획 변경 등이 불가피하다. 광주시는 2009년부터 사업 추진에 들어가 2014년 7월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부에 예타 조사를 신청하고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하는데 공을 들였다. 사업규모는 국·시비, 민간자본을 통틀어 1175억원이며, 사업 완료기간은 2023년이다.

세부 사업은 중외공원 82만2000여㎡와 용봉지구 10만5000여㎡에 비엔날레자료관, 파빌리온(진열관) 형태의 국가관, 음악당, 공방촌 등을 만들어 광주비엔날레를 상징하는 국제타운을 조성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서광주 나들목으로 단절된 시립민속박물관과 국립박물관을 연결하는 다리 신설 등도 주요 사업에 포함됐다. 시는 중외공원 주변에 있는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비엔날레 등을 아우르는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구축, 이 일대를 광주시 동구에 있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무특보, 이번엔 신중하게 고르자”

광주시, 후임 찾기 안간힘

광주시 이해명 정무특별보좌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후임 특보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광주시와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운영현 시장 등 주변 인사들이 후임 정무특보 찾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무라인에서 여러명이 물망에 올랐지만, 후임을 정하는 데 여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시장 취임 이후 2명의 정무특보가 차례로 중도 사직함에 따라 세 번째 특보 임명에는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애초 정당인, 시민단체 출신, 언론인 출신 등이 마하평에 오르내리긴 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인물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

해졌다. 앞서 2014년 7월 민선 6기 운영현 호(號) 출범 후 광주시에서는 장현 전 호남대 교수(현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초대, 이해명 전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사무처장이 2대 정무특보에 임명됐으나,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중도 사직했다. 정무직 좌장인 정무특보 수행능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대(對)의회 교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한 부정적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결과 녹록지 않은 자리인 데다 1, 2대 특보가 줄줄이 중도 낙마한 상황이라 후임자 인선은 인물검증이 큰 과제가 될 것”이라며 “특히 임기 후반 시민시장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여서 더욱 신중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북구 광주 비엔날레 국제타운 조성사업 대상지 진경. 이 사업은 중외공원 주변에 있는 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비엔날레 등을 아우르는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개인택시면허 살때 용자 지원

신규 면허 중단대책

양수 지원사업 추진

광주시가 수십 년 무사고 운전자가 개인택시면허를 살 수 있도록 이른바 양수(讓受) 사업을 추진한다. 갑차(減車)도 여의지 않고 신규 면허발급은 꿈도 못 꾸는 형편에서 개인택시를 사는 데라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광주시는 7일 시청 회의실에서 광주 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 개인택시면허 양수용자지원 특별보증 협약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시가 보증재단을 통해 개인택시면허 구입을 위한 용자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시가 광주신보에 5억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10배인 50억원을 신용보증 해준다. 개인택시 60대의 면허를 살 수 있는 규모로, 대출은행은 농협과 신한은행이다. 광주시는 대출이자 3.14~3.34% 중 1.5%가량을 지원한다. 대상은 20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운전사로 264명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들에게 9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해주면 개인택시를 사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 대출받은 운전자는 2년 거치 뒤 8년간 나눠 갚으면 된다. 광주에서는 연간 200대 가량의 개인택시가 거래되고 있으며 가격은 1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저금리인 시중 금리가 급등하면 택시 매입자나 광주시의 대출 부담이 커져 사업 성과는 크게 줄 수 있다. 광주시는 2014년부터 택시 갑차에 나선지만 실적은 전무하다. 갑차 지원비만 1300만원에 그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때문이다. 갑차 대상인 공급과잉 택시는 전체 면허 대수의 15.5%인 1268대에 달한다. 76개 법인 3409대, 개인 4809대 등 모두 8209대 중 1000대 넘게 출여야 한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런 만큼 수년간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막혀 운전자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궁여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청년위 “야시장 콘텐츠·창업 인프라 확대 필요”

분과별 의제발굴 등 활동 활발

대구 청년위와 교류 추진도

광주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청년들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제2기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회(위원장 이현영)’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2기 청년위원회는 지난 1월 공개모집을 통해 대학생, 청년CEO, 취업자, 문화 및 시민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47명으로 구성됐다. 관심분야에 따라 ▲경제·일자리 ▲문화·삶의질 ▲교육·진로 ▲참여·소통 등 4개 분과로 나눠 활동해왔다. 청년위원회는 4개월여 동안 20여 차례 전체·분과별 회의를 열어 청년 의제를 발굴하고, 지난

달 28일 ‘청년의 거리’ 행사가 열린 5·18 민주광장에서 활동보고회를 열고 분과별 연구활동 결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일자리 분과는 전국 야시장 운영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역성과 차별성을 갖춘 콘텐츠 확보가 필요하고 야시장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현영 청년위원장은 “상반기에는 분과별 연구활동에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청년축제 참여와 대구시 청년위원회와 교류, 청년컨퍼런스 참가 등 대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년정책·관행치를 위한 소통창구인 청년위원회를 구성해 ‘빛가람 취업 멘토링’, ‘청년상인 육성’ 등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했다. /최권일기자 cki@

전남도, 최근 2년여간 288개 기업 유치

8931명 고용 창출

지난 2014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남 지역에 모두 288개 기업이 이전해 8931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2조5589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장성, 함평, 영암, 여수 등이 선전했다. 6월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2개 기업이 1조1090억원(고용 4202명)을, 2015년에는 106개 기업이 5329억원(2920명)을,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60개 기업이 9170억원(1809명)을 전남에 투자했다. 지난해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타지 기업들이 올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장성 나노산단, 여수국가산단 등을 잇따라 노크하고 있는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특히 전남도는 이들 기업의 투자금액 가운데 주력·전략·뿌리·특화산업 관련 기업의 투자금액이 65.43%를 보이고 있다는 데 고무적이다. 2년 5개월 간 화학·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 신재생에너지, 우주항공, 생물 등 미래산업 등과 관련된 기업은 106곳으로, 1조6744억원을 들여 3730명의 지역민을 채용했다. 고용인원 별로 살펴보면 2014년 영암의 한국다이퍼(주)가 300명, 2015년 함평의 (주)삼원산업사가 200명, 2016년 광양의 (주)다오요트가 204명 등을 뽑아 연도별 최고 고용업체로 꼽혔다. 시·군별로는 2년 5개월 간 통합평산단의 함평(41곳), 나노바이오산단의 장성(40곳), 대불산단의 영암(29곳), 여수국가산단의 여수(27곳) 등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과태료 등 상습 체납 차량

광주시, 번호판 영치기로

광주시가 오는 8일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번호판 영치를 전국 동시에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

한 차들이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장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체납액과 차량 등록지에 상관없이 전국 지자체 어디에서 번호판을 보관하게 된다. 현재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으로 인한 문제도 사회적 비용까지 날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산업환경기기 & 기계부품 제조전문업체

최고를 지향하는 친환경기업 YHBECO

www.yhb.co.kr

YHB 이동식 에어컨

조리작업장/주방/산업현장 작업효율 증대!!
체감온도를 낮춰 최적의 작업환경 보장!!

▶ 쾌적하고 깨끗한 작업공간 연출
▶ 실내·외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
▶ 이동이 용이한 바퀴 형태
▶ 고온 및 습기에 강력

PTB7000

PTB5000

PTB-W5000(수냉식)
업소 주방에 최적

대한민국 우수중소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기업
특별가 공급

▶ 설치 장소
조리작업장, 주방, 여름캠프장, 골프연습장
창고작업장, 산업현장, 유통점, 열처리장, 정비소
고온작업장, 유리작업장, 기계실, 전산서버룸

전국 50개 지점망 이용
24시간 내 A/S

필터 교체가 필요없는 집진기

YHB (주)YHBECO / 주식회사 YHB / (주)YHB 토발서비스

본사 및 영업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원테크노타운 12차 501호 ☎02-2029-6400 / FAX 02-2029-6404

광주 주 사무소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74(오선동) ☎062-952-6633 **익산공장** 전북 익산시 석막로1길 4(용제동) ☎63-835-4771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shh@yhb.co.kr / eco6400@hanmail.net

1899-8735

전북의 랜드마크호텔 **특별분양!!**

전주 한옥마을 라마다 @encore 호텔

RAMADA JEONJU @encore

10년
수익보장

실투자
6천만원

월수익
100만원

계약서 발행 2분만에 완판신화!!

1899-8735

NAVER 라마다 전주 검색

2017년 명품의 가치가 증명됩니다